

김도영이 열고 전상현이 닫았다…KIA 가을야구 ‘투타의 힘’

김도영 멀티홈런 4타점…네일·올러 선발 호투
전상현 이틀 연속 위기 봉쇄…준PO 2연승 견인

KIA타이거즈가 준플레이오프 첫 두 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한 데에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제 몫을 해낸 선수들의 활약이 있었다.

‘슈퍼스타’ 김도영이 화끈한 장타로 공격의 선봉에 섰고, 제임스 네일과 아담 올러는 선발 마운드를 든든하게 지켰다. 여기에 전상현은 이틀 연속 경기 막판 LG의 추격을 차단했다.

KIA는 지난 17~1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트윈스와의 2026 KBO 포스트시즌 준플레이오프 1·2차전에서 모두 승리하며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단 1승만을 남겨뒀다.

1차전 승리의 중심에는 김도영이 있었다.

김도영은 17일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홈런 2개를 포함해 4타점을 쓸어 담으며 팀의 5-1 승리를 이끌었다.

1-1로 맞선 4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LG 선발 톨러스트의 초구 149km 직구를 받아쳐 좌측 담장을 넘기는 비거리 125m 역전 솔로포를 터뜨렸다.

김도영의 방망이는 경기 후반에도 식지 않았다. 3-1로 앞선 8회말 2사 1루에서 장현식의 133km 포크볼을 건어 올려 중앙 담장을 넘기는 투런포를 쏘아 올렸다.

김도영은 이날 홈런 2개와 희생플라이로 홈로 4타점을 책임지며 역대 준플레이오프 한 경기 최다 홈런 타이 기록에도 이름을 올렸다.

정규시즌 최종전에서도 LG를 상대로 시즌 45호 홈런을 터뜨리며 팀의 준플레이오프 직행을 이끌었던 김도영은 포스트시즌에서도 해결사 역할을 이어갔다.

마운드에서는 선발투수들의 호투가 빛났다.

1차전 선발 네일은 7이닝 4피안타 6탈삼진 1실점으로 LG 타선을 봉쇄했다.

2회초 송찬의에게 선제 솔로 홈런을 허용했지만 이후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추가 실점을 막았다.

특히 2-1로 앞선 6회초 무사 1·2루 위기에서 문정빈을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문보경에게 병살타를 유도하며 리드를 지켜냈다.



김도영



제임스 네일



애덤 올러



전상현

7회까지 마운드를 책임진 네일은 1차전 데일리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2차전에서는 올러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올러는 18일 경기에서 공 94개를 던지며 6이닝 6피안타 8탈삼진 2실점으로 호투했다.

1회말 타선이 5점을 뽐내며 든든한 지원군을 받은 가운데 3회와 5회 각각 한 점씩

내줬지만, 추가 실점 없이 6회까지 마운드를 지켰다.

경기 후반에는 전상현의 존재감이 두드러졌다.

전상현은 1차전 8회초 2사 1·2루 위기에서 문정빈을 뜬공으로 처리하며 LG의 추격을 끊었다. 9회초에도 마운드에 올라 실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했다.

2차전에서도 승부처를 책임졌다.

6-3으로 앞선 8회초 2사 상황에서 LG가 연속 안타로 추격 기회를 만들자 KIA 벤치는 다시 전상현을 선택했다.

전상현은 이재원을 삼진으로 처리하며 위기를 벗어났고, 9회초에는 삼진 2개를 결투여 삼자범퇴로 경기를 끝냈다.

1.1이닝 무피안타 3탈삼진 무실점으로 세이브를 기록한 전상현은 2차전 데일리 MVP에 선정됐다.

1차전 김도영과 네일이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면 2차전에서는 올러와 전상현이 그 흐름을 이어받은 셈이다.

KIA는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단 1승만을 남겨두고 있다. 김도영의 장타력과 선발진의 안정감, 전상현을 중심으로 한 불펜의 집중력이 남은 시리즈에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태권에서 대량 입상에 성공한 광주 선수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태권스포츠 경기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한 전남 선수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메달 레이스 ‘순항’…다관왕·신기록 행진

광주 금25·은24·동37개…역도 남·여 3관왕 2명 배출
전남 금15·은24·동38개…서창완 2관왕·유도 4연패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광주·전남 선수단이 대회 초반부터 다관왕과 신기록을 잇따라 배출하며 순조로운 메달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8일 오후 5시 기준 광주 선수단은 금메달 25개, 은메달 24개, 동메달 37개 등 총 86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광주는 역도에서 3관왕 2명을 배출하며 강세를 보였다. 손현호(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는 남자 일반부 75kg급에서 인상 154kg, 용상 199kg, 합계 353kg으로 금메달 3개를 휩쓸었다. 용상과 합계에서는 각각 4연패를 달성했고, 한국신기록도 작성했다.

안시성(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도 여자 일반부 61kg급에서 인상 97kg, 용상 118kg, 합계 215kg으로 3관왕에 올랐다. 불링에서도 다관왕이 나왔다. 강다훈(광

주체고), 김재영·민도율(이상 청단고)은 남자 18세 이하부 3인조와 5인조에서 금메달을 합작하며 나란히 2관왕에 올랐다. 5인조에서는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사격 여자 일반부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김효빈·박경은(남부대), 권유나·박선민(우리은행)이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정상에 올랐다. 양궁에서는 오예진(광주은행)이 여자 일반부 70m에서 297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밖에 배드민턴 18세 이하부 혼합복식 김선우(전대사대부고)·여서영(광주체고), 검도 여자일반부 단체전, 태권 남자일반부 3개 체급, 소프트테니스 여자 18세 이하부 개인복식에서 금메달을 추가했다.

전남 선수단도 금메달 15개, 은메달 24개, 동메달 38개 등 총 77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선전을 이어갔다. 전남의 메달 행

진은 근대5종 서창완(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이 주도했다.

서창완은 남자 일반부 개인전에서 1586점으로 우승한 데 이어 김영하와 함께 출전한 단체전에서도 3145점으로 정상에 올라 2관왕을 차지했다.

유도 여자 일반부 -70kg급 김지정(순천시청)은 대회 4연패를 이뤄내며 저력을 과시했다. 같은 종목의 -48kg급 양서우(순천시청)도 금메달을 추가했다.

태권도에서는 윤미르(여주고)가 남자 18세 이하부 -74kg급, 김가현(한국가스공사)이 여자 일반부 -62kg급에서 정상에 올랐다. 물러 남자 일반부 스피리트 500m+D에서는 박형상(여주시청)이 금메달을 따냈다.

최지우(광양하이테크)는 육상 여자 18세 이하부 400m에서 55초69로 우승했고, 김예찬(전남체고)은 레슬링 남자 18세 이하부 자유형 86kg급을 제패했다. 바둑 여자 일반부 단체전에서도 전남선발이 금메달을 추가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

2027 양궁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앞두고 치르는 마지막 대회인 만큼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안산 역시 약전후 속에서도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으며 시상대에 올랐다.

안산은 “전국체전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끌어올리겠다”며 “내년 세계선수권대회를 목표로 국가대표 2차 선발전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역도 손현호 “세계선수권 용상 금 목표”

남일반부 용상·합계 한국신기록 3관왕…안시성도 첫 3관왕

“한국신기록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쟁하려면 지금보다 더 높은 중량을 들어야 합니다.”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한국신기록 2개를 작성하며 3관왕에 오른 손현호(광주특별시청)의 시선은 이미 세계 무대를 향하고 있었다. 한국 역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도 만족보다는 더 높은 목표를 이야기했다.

손현호는 지난 16일 제주 사라봉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역도 남자일반부 75kg급 경기에서 인상 154kg, 용상 199kg, 합계 353kg을 기록하며 금메달 3개를 휩쓸었다.

인상에서는 전국체전 2연패를 달성했고, 용상과 합계에서는 각각 4연패의 위업을 이뤘다. 특히 용상 199kg과 합계 353kg은 한국신기록으로 인정되며 이번 대회 활약에 의미를 더했다.

이번 성과는 아시안게임에서 겪은 어려움을 딛고 일궈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값졌다.

손현호는 앞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인상 149kg에 세 차례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하며 실격 처리됐다. 강점인 용상에서 기량을 발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대회를 마쳐야 했다. 그러나 좌절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시안게임을 통해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의 격차를 확인한 그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전국체전을 준비했다.

손현호는 “아시안게임을 치르면서 세계의 벽이 높다는 것을 실감했다. 하지만 용상만큼은 세계적인 선수들에게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며 “이번 전국체전에서는 명소와 똑같이 훈련하고 식사하면서 준비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돌아봤다.

실제로 이번 대회에서 작성한 인상 154kg과 용상 199kg은 손현호가 경기 전부터 목표로 설정했던 기록이다. 체급 변화에 따른 어려움도 극복했다.

지난해 81kg급에서 뛰었던 그는 올해 체급 체계 개편에 따라 75kg급으로 내려왔지만 기존의 경기력을 유지하며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손현호는 한국신기록 달성에도 담담했다.

그는 “이번 기록은 기존 선수가 세운 기록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설정된 기준 기록을 달성한 것”이라며 “기록을 세웠다는 사실에 만족하기보다는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상 3차 시기에서 205kg까지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훈련에서는 202kg까지 들어 올렸는데, 205kg을 성공할 수 있다면 세계 무대에서도 금메달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보완해야 할 과제로 분명히 짚었다.

손현호는 “용상에 비해 인상이 약한 편이다. 인상에서는 바벨을 넓게 잡다 보니 손가락이 풀리는 문제가 있다”며 “약력과 관련 근력을 강화해 인상 기록을 160kg까지 끌어올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의 다음 목표는 오는 25일 출국해 참가할 중국 세계역도선수권대회다. 손현호는 “당장 목표는 세계선수권 대회 용상 금메달이다. 이번 전국체전에서 확인한 가능성을 세계 무대에서도 증명하고 싶다”며 “궁극적으로는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꿈”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광주특별시청 역도팀의 금메달 행진은 여자부에서도 이어졌다.

안시성(광주특별시청)은 1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여자일반부 61kg급 경기에서 인상 97kg, 용상 118kg, 합계 215kg을 기록하며 생애 첫 전국체전 3관왕에 올랐다.

인상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다.



손현호는 지난 17일 제주 사라봉다목적체육관에서 역도 남자일반부 75kg급 경기에서 인상 154kg, 용상 199kg, 합계 353kg을 기록하며 금메달 3개를 휩쓸었다.

안시성 역시 아시안게임 이후 짧은 회복 기간과 컨디션 저하를 극복하고 거둔 성과여서 의미가 남달랐다.

안시성은 “전국체전에서 처음으로 3관왕을 차지해 기쁘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아시안게임 이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회복에 집중하며 대회를 준비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시안게임 경험은 안시성에게도 새로운 자극이 됐다.

안시성은 “아시안게임에 나가 보니 세계신기록을 세우는 선수들이 많았다”며 “큰 무대에서 위축됐던 부분이 아쉬웠지만 그만큼 더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앞으로는 체급을 올려 올림픽 무대까지 도전하겠다는 구상이다.

안시성은 “내년부터는 69kg급으로 체급을 올려 새로운 도전에 나설 생각이다. 체중이 쉽게 늘어나는 편은 아니지만 꾸준한 근력 훈련을 통해 힘을 키우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69kg급에서도 한국신기록을 경신하고, 나아가 올림픽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은행 양궁 오예진, 강풍 뚫고 금메달 명종

양궁 여자일반부 70m서 297점 정상…안산도 동메달 획득

광주은행 탠탱양궁단 오예진이 거센 강풍을 뚫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예진은 지난 17일 제주 안덕생활체육관에서 열린 양궁 여자일반부 70m 경기에서 297점을 기록하며 정상에 올랐다. 이날 선수들이 맞서야 할 가장 큰 상대는

경쟁자가 아닌 바람이었다. 선수들이 손화살이 4~5점에 그치는 상황이 속출했고, 바람 영향에 따라 순위도 요동쳤다.

오예진은 “강풍이라는 변수 속에서도 바람을 읽으며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쏘려고 노력했다”며 “30일부터 시작되는